



배정훈(장신대)

## 1. 서론<sup>1</sup>

묵시문학에 대한 연구는 한때 다니엘서를 이상적인 묵시문학으로 전제하고 진행되었지만,<sup>2</sup> 쿠파란 문서들 중에서 에녹서가 발견되면서 다니엘서가 다니엘

\* 이 논문은 2019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1 이 글은 2016년 7월에 한국에서 개최된 SBL International Meeting에서 발표한 것을 글로 옮긴 것이다(제목: "Reception of New Revelation in the Book of Daniel"; Program Unit: Apocalyptic Literature). 이 글은 다음 두 글을 전제하고 확대하고 있다. 배정훈, "최종본문으로 바라보는 다니엘서", 『신학과 문화』, 제 16집 (2007년 5월), 241-266. 배정훈,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 에녹서와 다니엘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최종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서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첫 번째 글은 이 글의 배경이요 출발점이다. 두 번째 글은 이 글의 논지의 출발점이지만, 다양한 지점에서 새로운 자료와 해석으로 주제를 확장하여 새로운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 2 H. H. Rowley, *The Relevance of Apocalyptic*, 3<sup>d</sup> ed.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3), 93-105. D. S. Russell, *The Method and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4), 48. Martin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trans. John Bowden (Minneapolis: Fortress, 1974), 176.

서 이전에 있었던 초기 묵시문학인 에녹 1서에<sup>3</sup> 대한 반응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다니엘서의 최종 편집 시기는 기원전 164년 정도이며, 에녹 1서(1-36 장)의 최종 편집 시기는 기원전 200년 정도이므로 이 문헌들 간의 차이는 40년 정도로 볼 수 있다.<sup>4</sup> 유사한 시기의 묵시문학들인 두 책 간의 갈등들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sup>5</sup> 이 글은 이 갈등의 흔적을 다니엘서의 형성 과정에서 찾고자 한다. 구약성경에서 새로운 계시에 대한 저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로 나타난다(신 4:2; 12:32; 잠 30:6). 이 글은 이러한 진술이 새 계시에 대한 논쟁의 중요한 증거로 보고 새 계시에 대한 저항이 다니엘서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려고 한다.<sup>6</sup>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의 안티오쿠스(Antiochus) 4세 아래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다니엘서의 저자는 종말에 관한 새로운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시도한다. 이 글의 목표는 이 시대의 새 계시 논쟁이 다니엘서의 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 
- 3 제1 에녹서는 다섯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수꾼의 책 (the Book of Watchers, 1-36 장), 비유의 책 (the Similitudes, 37-71 장), 천문학 책 (the Astronomical Book, 72-82 장), 꿈의 책 (the Book of Dreams, 83-90 장), 그리고 에녹의 편지(the Epistle of Enoch, 91-108 장). 이 중에서 묵시학과 관련되는 책은 기원전 200년 경 만들어진 파수꾼의 책이다. 존 J. 콜린스, 『묵시문학적 상상력: 유대 묵시문학 입문』(박요한 옮김),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6), 93-94. 원제는 J. J. Collins, *The Apocalyptic Vision of the Book of Daniel* (HSM 16;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7).
  - 4 밀릭(J. T. Milik)은 쿨란에서 발견된 아람어판 에녹서 편집판을 통해 파수꾼의 책의 저작 연대를 기원전 3세기로 보고 있다. J. T. Milik, *The Books of Enoch: Aramaic Fragments of Qumran Cave 4* (Oxford: Clarendon, 1976), 140-41. 다니엘서는 문서의 발전에 있어서 몇 단계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학자들은 다니엘서의 주요 부분은 주전 164년경(안티오쿠스의 박해시기)에 현재 상태로 편집되었다고 주장한다. J. J. Collins, “Daniel, Book of”, *Anchor Bible Dictionary* 2: 31. 이러한 관찰을 종합해 보면 파수꾼의 책의 최종 편집과 다니엘서의 최종 편집 간에는 4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제2 성전의 지배층들의 권위 아래 있는 제2 성전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보다 더 진정성 있는 계시를 얻기 위하여 에녹이 하늘에 오른다는 주장은 특히 에녹서 14장에서 두드러진다. 배정훈, 윗글 (2008), 174-183.
  - 6 에녹서와의 관계 안에서 새 계시 논쟁을 살피는 것은 본문의 범위가 너무 확장되는 작업이므로 이 글의 범위는 단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흔적을 살피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한 주제는 배정훈의 책을 참조하라. 배정훈, 윗글(2008).

## 2. 다니엘서의 형성 과정에 대한 가설

먼저 다니엘서의 형성 과정을<sup>7</sup>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울리(H. H. Rowley)의 통일 가설과 긴스버그(H. L. Ginsberg)의 단편 가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sup>8</sup> 로울리는 다니엘서의 네 단계 편집을 강조한다. 1단계, 아람어 자료로 된 이야기(다니엘서 2-6장).<sup>9</sup> 2단계, 아람어로 쓰인 종말론적인 환상(다니엘서 7장). 3단계, 히브리어로 쓰인 나머지 종말론적인 이상들(다니엘서 8-12장). 그리고 4단계는 히브리어로 쓰인 서론(다니엘서 1장).<sup>10</sup> 긴스버그에 따르면 다니엘서는 두 종류의 문서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은 다니엘서 1-6장의 묶음(기원전 292-261년 또는 304년)과 다니엘서 9장의 저자에 의해 편집된 층들의 조합이다. 두 번째 묶음으로 다니엘서 9장의 저자가 작업한 것은 다니엘서 7장(마카비 시대, 기원전 175년과 167년 사이), 다니엘서 8장과 10-12장(기원전 166-165년), 다니엘서 9장(최종 편집자)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편집자는 다니엘서 7-12장을 1-6장에 연결함으로써 한 권의 최종 본문을 만들었다.<sup>11</sup> 최근에 콜린스(J. J. Collins)는 3단계 편집을 주장한다. 1) 다니엘서 1-6장(마카비 시대 이전). 2) 아람어로 쓰인 다니엘서 1장의 히브리어 번역(마카비 시대). 3) 다니엘서 7장과 8-12장을 연결시킨 편집자가 7-12장과 1-6장을 결합시켰다.<sup>12</sup> 라코쿠(Andre Lacocque)에 따르면, 마카비 시대의 저자가 다니엘서 7-12장을 쓰고,

7 다니엘서 최종 본문의 형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 *윗글* (2007), 241-266.

8 Pablo S. David,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the Book of Daniel: A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Dissertation, 1992), 20.

9 H. H. Rowley, "The Bilingual Problem of Daniel", *ZAW* 50 (1932), 256-268.

10 H. H. Rowley,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Daniel: Some Comments on Professor Ginsberg's Article", *VT* 5/3 (1955), 272-276.

11 H. L. Ginsberg,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Daniel," *VT* 4/3, 246-275; *idem*, "In Re My Studies in Daniel", *JBL* 68 (1949), 402-407.

12 J. J. Collins, *The Apocalyptic Vision of the Book of Daniel* (HSM 16: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7); *Daniel with an Introduction to Apocalyptic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n, 1984), 27-32.

다니엘서 7-12 장의 신학에 따라 다니엘서 2-6장을 편집하였다.<sup>13</sup> 이러한 연구를 살펴 볼 때 다니엘서의 형성 과정에서 동의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7-12장은 아람어로 쓰인 7장과 히브리어로 쓰인 8-12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니엘서 1-6장(또는 2-6장)은 역사적인 포로시기의 산물로서 7-12장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니엘서의 편집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의 배경 아래 새 계시에 대한 논쟁이 다니엘서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한다.<sup>14</sup> 1)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장르인 환상-보좌 환상-환상의 해석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는다. 2) 다니엘서 1-6장에서 다니엘이 토라에 충실한 인물임이 입증됨으로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는 도구로서 다니엘이 받는 꿈과 환상의 합법성이 인정된다. 3) 다니엘서 10-12장은 환상-보좌 환상-환상의 해석이라는 묵시문학의 장르를 변경하여, 예언서의 전통에 따라 환상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다니엘은 예언자처럼 말씀을 받는다. 4) 더 나아가 다니엘서 9장은 환상을 말씀으로 대체할 뿐 아니라,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포로 70년이라는 말씀에 이미 담긴 것으로 보고, 다시 환상의 해석은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포로의 기간이 70년을 70이레로 해석하는 것이다.

### 3. 다니엘서 7장과 8장: 환상을 통한 종말의 계시

#### 1)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타나는 환상

구약성서에서 환상(헤주/ḥezw)은 무엇인가? 환상이라는 말은 시각적인 차원을 포함하여 신비로운 계시 경험으로 깨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밤에 본 것을

13 Andre Lacocque, *Daniel in His Time*(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3), 75.

14 이 논지는 다음 글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글은 이것을 다양한 증거와 해석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배정훈, *윗글* (2007), 248-249.

모두 말한다.<sup>15</sup> 처음에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sup>16</sup>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창 15:1). 점차적으로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환상은 곧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계시이며,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사 1:1; 암 1:1; 미 1:1; 나 1:1).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환상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거짓 예언자에 대한 논쟁이 있다.<sup>17</sup> 즉,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들이 받은 환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였다.<sup>18</sup>

다니엘서 1-6장에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의 위치였지만, 7-12장에 들어서면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을 받는 존재이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는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기 위하여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장르를 따라 환상, 보좌환상, 그리고 환상의 해석이 나타난다.<sup>19</sup> 계시, 즉 환상의 해석은 공동체가 받는 핍박이 언제 끝나는가 하는 종말까지의 기한에

- 
- 15 Greg Carey, "Vision",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5 (Nashville: Abingdon, 2009), 791.
- 16 Jackie A. Naude, "חֲזוֹן",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97), 56-61.
- 17 예언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받는 사람들이지만, 예언자들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예언자로부터 환상(하존)을 구하지만(겔 7:26),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예언자가 환상(하존)을 받지 못하는 수치를 당한다(미 3:6-7). 애가는 시온의 예언자들이 마땅히 얻어야 할 여호와로부터의 환상을 얻지 못한다고 불평한다(애가 2:9). Jackie A. Naude, 위의 책.
- 18 David J. A. Clines ed. "חֲזוֹן", in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III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83.
- 19 7장에서 1절은 환상의 배경을 보여주고, 28절은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나타나고, 2절부터 27절까지가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환상에 대한 해석인데, 1차 환상과 해석(2-18 절), 2차 환상과 해석(19-27 절)으로 이루어져 있다. 1차 해석에서는 환상 해석의 진정성을 위하여 보좌환상이 나타난다(단 7:9-14). C. L. Seow, *Daniel*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2003), 100. 배정훈, *룻글* (2008), 166.

관한 것인데,<sup>20</sup> 이 계시를 담은 도구인 꿈과 환상을 살펴보기로 하자.<sup>21</sup>

7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헬렘/ḥelem)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헤주/ḥezw)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리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단 7:1-2)

7장에서 꿈을 꾸는 주체는 왕이 아니라 다니엘이다. 꿈이라는 단어는 1절에서 2회 나오는데, “다니엘은 꿈을 꾸고, 그 꿈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한다.<sup>22</sup> 이후에 꿈이라는 말은 7장부터 12장까지 등장하지 않고, 대신 환상이라는 말만 나온다.<sup>23</sup> 다니엘서 8장에도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장르를 따라 환상, 보좌 환상, 그리고 환상 해석이 나온다.<sup>24</sup> 다니엘서 8장에서는 꿈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고 계시를 담은 도구로 환상(hāzôn)을 언급한다(8:1, 2, 13, 15, 16, 17, 19, 26-27).<sup>25</sup>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다니엘은 꿈과 환상이라는 도구

20 환상을 해석하면서 드러난 계시는 종말에 관한 계시로서 종말이 오기까지 짐승들로 상징되는 네 왕국, 네 왕국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에는 심판 때까지 남은 기한인 한때 두 때와 반 때가 계시된다. 조명기, “4Q246과 다니엘 7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14권 3호 (2008월 9월 30일), 125-144.

21 다니엘의 경험이 꿈과 해석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사실상 후자의 특성을 지닌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방관자의 역할을 하지만, 다니엘은 천상의 존재와 대화함으로써 자신의 환상에 참여한다. 8장 이하에서 다니엘은 경험을 환상이라고 말한다. Earnest C, *Daniel* (Apollo Old Testament Commentary; Apollos: Leicester, England, 2002), 177.

22 7장에서 2장과 4장의 꿈을 연상하게 하는 것은 의도적이며, 1-6장의 배경이 없이 7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C. L. Seow, *룻글* (2003), 99.

23 7장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여러 번 언급한다. “환상을 보았는데”(7:2), “내가 밤 환상가운데”(7:7),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7:13),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7:1, 15).

24 8장에서 1절은 환상의 배경이며, 27절은 다니엘의 반응이다. 2절부터 14절까지는 환상의 내용이며, 15절부터 19절까지는 보좌 환상, 그리고 20-26절까지는 천사를 통한 환상의 해석이다.

25 8장에서 환상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다니엘은 종말에 관한 계시가 담긴 것을 환상이라고 부르고(8:1), 그 환상을 오래 강변에서 보았다고 진술한다(8:2). 종말까지 남은 기간이 2300 주이라는 계시를 환상의 일부라고 부르고(8:13), 천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8:15) 깨닫게 하라는 명령을 받는다(8:16). 다시금 주어진 계시의 내용을 환상이라고 부르고(8:17), 환상은 정한 때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다(8:19). 환상이 주어진 이후에 다니엘은 환상을 간직

를 통하여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 종말에 관한 계시의 내용은 꺾박을 받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내용인 것이 분명하지만, 과연 꿈과 환상이 그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가?

## 2) 다니엘서 7-12장과 다니엘서 1-6장에 나타나는 꿈과 환상<sup>26</sup>

다니엘서 1-6장에서 꿈만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용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꿈(1:17, 2:2, 2, 3, 4, 5, 6, 7, 9, 26, 28, 36, 45; 4:5, 6, 7, 8, 9, 18, 19; 5:12), 환상 [하존(hāzôn 1:17), 헤주(hezw 2:19, 2:28, 4:5, 9, 10, 13)]. 원래 환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가리키며, 주로 다니엘서 7-12장에 등장한다. 그런데 다니엘서 1-6장에서 다니엘은 주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자이지만, 다니엘이 꿈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는 그것을 환상이라고 부르면서 권위 있는 예언자의 역할을 한다고 묘사한다.

1-6장에 등장하는 환상이라는 용어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7장에서 환상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7:1, 15)이라는 용어가 2장과 4장에서 똑같이 등장함으로(2:28; 4:5, 10, 13) 다니엘이 직접 받은 계시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받은 계시를 모두 꿈이 아닌 환상이라고 부름으로 환상을 꿈과 다르게 구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2장에서 환상이 사용된 나머지 경우는 2장 29절이다.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여기에서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꾸었지만 꿈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환상은 다니엘이 직접 받았기에 이는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환상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4장에서도 환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4:5, 10, 13)이라는 표현 이외에 느부갓네살 왕은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단 4:9)을 언급함으로 왕이

하라고 명령받고(8:26), 환상으로 인하여 놀랐다(8:27).

26 다니엘서(개역성경)에서 환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모두 세 종류이다. 마르아(marʾāh), 하존(hāzôn), 헤주(hezw). 다니엘서에서 이들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이람어로는 헤주(hezw, 7:1, 2, 7, 13, 15), 마르아(marʾāh, 단 9:23; 단 10:1, 16), 하존(hāzôn, 단 8:1; 9:24; 10:14; 11:14), 이 단어들은 모두 의미론적으로(semanticly) 유사한 단어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밀한 계시를 환상이라고 표현한다.<sup>27</sup>

결과적으로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꿈과 환상을 제시하고 있다. 다니엘서 1-6장에서 다룬 이방 왕이 받은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볼 뿐 아니라, 그 꿈 자체가 왕이 직접 받은 계시이므로 환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꿈에 대한 해석은 왕이 아니라 다니엘이 받은 은밀한 계시이므로 환상이라고 부른다. 다니엘서 7-12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은 남의 꿈에 대한 해석자의 역할을 벗어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직접 은밀한 계시를 받고 이것을 환상이라고 한다(7장과 8장). 단지 다니엘서 1-6장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7장 1절에서 다니엘이 받은 것이 꿈이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한다. 이제 7장과 8장에서 계시의 도구로 사용된 꿈과 환상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기로 하자.

### 3) 다니엘서가 계시의 도구로 채택한 꿈과 환상은 합법적이다.

꿈과 환상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7장과 8장만이 아니라 구약성서에서부터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sup>28</sup> 구약성서에서 꿈(할롬/hālôm)과 환상(하존/hāzôn)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를 전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꿈(할롬/hālôm)과 환상(마르아/mar'āh)으로 계시를 보여주신다(민 12:6). 이방 예언자인 발람도 예언을 통해 환상(마하제/maḥāzēh)을 본다(민 24:4, 16). 솔로몬은 꿈(할롬/hālôm)을 통하여 계시를 받았다(왕상 3:5, 15).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목사가 환상(하존/hāzôn)이다(사 1:1; 읍 1:1; 나 1:1; 합 2:2, 3). 에스겔은 환상(마르오트/mar'ôṭ) 가운데 하나님께 이끌린다(겔 8:3; 11:24; 40:2; 43:3).

그러나 구약성서는 꿈과 환상의 위험성들을 경고하고 있다.

27 다니엘서 4장 9절과 10절에서 나타나는 환상이 원래 본문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다. John, J. Collins,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3), 294.

28 구약성서에서 환상이라는 단어는 세 종류의 단어로 나타난다: 마르아(mar'āh; 민 12:6; 겔 11:24); 마하제(maḥāzēh; 창 15:1; 민 24:4, 16; 겔 13:7); 하존(hāzôn; 삼상 3:1; 잠 29:18; 사 1:1; 29:7; 렘 14:14; 23:16; 애 2:9; 겔 7:13, 26; 12:22, 23, 24; 13:16; 호 12:11; 읍 1:1; 나 1:1; 합 2:2, 3).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할롬/hālôm)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그런 꿈꾸는 자는 죽이라. (신 12:3, 5).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할롬/hālôm)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렘 23:25)

그들이 말한 묵시(하존/hāzôn)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렘 23:16)

신명기는 환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sup>29</sup> 예레미야도 꿈을 계시의 도구로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렘 23:25; 29:8), 대신 계시의 도구로서 말씀을 강조한다(렘 23:28).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환상에 대하여 경계한다(겔 13:7; 13:14; 23:16).<sup>30</sup> 이는 계시의 도구로서 꿈과 환상의 역할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잘못된 계시를 전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계시의 도구로서 꿈과 환상의 위험성은 제2 성전 시기에도 등장한다. 꿈과 환상을 통해 주어지는 새 계시의 위험성은 바로 최종적인 계시인 토라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기원전 2세기에 쓰인 집회서는 모세의 율법을 최종적인 계시로 보면서, 새로운 계시를 얻으려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한다.

네게 너무 어려운 것을 찾지 말고, 네 힘을 넘어서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은 너에게 필요가 없으므로, 너에게 주어진 것만을 묵상하도록 하라.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은 너에게 보였으므로, 너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간섭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들을 급하게 판단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걸길로 가고 잘못된 의

29 신명기는 나타난 말씀 이외에 새로운 계시("감추어진 일")의 가능성을 차단한다(신 29:29).

30 윤동녕, "에스겔서에 나타난 허탄한 묵시(하존 사브)의 의미와 기능 연구-에스겔서 13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0권 3호(2014, 9), 198-222.

견으로 넘어지곤 하기 때문이다. (집회서 3:21-24)<sup>31</sup>

어리석은 사람의 희망은 거짓이요, 허망된 것이며, 바보 같은 자들은 꿈에 따라 우왕좌왕한다.... 복술(Divinations)과 길흉(omen)과 꿈은 어리석은 것이요, 산고있는 여인처럼 그 마음이 헛된 것이라.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꿈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다 넘어 지느니라. 그러한 미혹함이 없다면, 율법이 성취되며 지혜는 진리를 말하는 입술에서 완전해진다. (집회서 34:1, 5-8)<sup>32</sup>

이와 같이 신명기의 진술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오랜 전통에서 꿈과 환상을 계시의 도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꿈과 환상을 계시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다니엘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꿈과 환상이 계시를 받는 도구로서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꿈과 환상을 받는 다니엘의 권위를 인정함을 통하여 다니엘이 받은 종말에 관한 계시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편집자의 의도는 다니엘서 1-6장을 통하여 토라에 대한 다니엘의 충성심(faithfulness)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다니엘이 7장과 8장에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받은 계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니엘서 1-6장은<sup>33</sup> 다니엘이 역사적인 포로 70년 동안 철저하게 토라에 순종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

31 J. L. Crenshaw,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rev. and enl. e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25. 집회서는 그의 경쟁자가 신비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상세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그의 어휘는 아마도 예복 1서를 염두에 둔 듯하다. Randal A. Argall, *1 Enoch and Sirach: A Comparative Literary and Conceptual Analysis of the Themes of Revelation, Creation and Judgment*(Atlanta: Scholars Press, 1995), 250.

32 집회서는 꿈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을 토라가 금지한 나라의 우상숭배적인 행위들이라고 규정하며 공격하고 있다 (신 18:10-11). Randal A. Argall, 위의 책, 82-83.

33 다니엘서 2-6장은 포로를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같은 디아스포라들에게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한다. 포로의 끝은 있고 세상 나라가 끝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포로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이방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도구인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이유는 뜻을 정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고기와 포도주로부터 자신을 지켰기 때문이다(단 1:8, 17).<sup>34</sup> 세 친구들은 십계명 중의 첫째 계명(출 20:3-6; 신 5:7-10)에 따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풀무불에 던져지기를 마다하지 않고, 금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였다(다니엘 3장). 다니엘은 토라 이외에는 고발할 수 없을 정도로 흠이 없었고, 사자 굴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다니엘 6장). 다니엘서 1-6장에 나타난 다니엘은 토라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한 자이다. 비록 구약성서 전승에서 꿈과 환상이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토라에 대한 순종이 확인된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졌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는 계시의 도구로서 꿈과 환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다니엘서 1-6장에서 토라에 신실하다고 입증된 다니엘의 권위 아래 그가 받은 꿈과 환상을 계시의 도구로 받아들인 것이다.

#### 4. 다니엘서 10-12장과 9장에 나타나는 환상과 말씀

##### 1) 다니엘서 10-12 장에 나타나는 환상과 말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꿈과 환상을 계시의 도구로 받아들였지만 다니엘서의 저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음 단계로서 10-12장에서는 예언서의 전통에 따라 환상 자체를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즉, 다니엘서 10-12장은 다니엘이 받은 종말에 대한 계시인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보여줌으로 다니엘을 예언자로 규정한다.<sup>35</sup>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다니

34 더럽힌다는 단어는 가일(גַּיַל)로서 구약 후기 문헌에 주로 나타난다(사 59:3; 63:3; 스 2:62; 느 7:64; 애 4:14; 말 1:7, 12). 이방나라에서 술과 고기는 일반적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음식물로 제시되곤 하였다(신 32:38; 34:15; 행 15:29). John E. Goldingay, *Daniel* (WBC 30; Dallas, Tex.: Word Books, 1986), 18-19. 배정훈, 위의 책 (2008), 52.

35 다니엘서 10장에서 계시된 말씀은 다니엘의 환상적인 경험을 가리킨다. 이제 묵시적인 환상은 예언적인 말씀이다. C. L. Seow, 위의 책 (2003), 154.

엘서 10-12 장은 크게 1) 환상(10:1), 2) 보좌환상 (10:2-11:1),<sup>36</sup> 3) 환상의 해석<sup>37</sup> 등 세 부분으로 나누인다. 10-12장이 7장과 8장과 다른 점은 첫 번째 요소로서 환상이라는 말이 7장과 8장에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환상을 보여주는 10장 1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바사 왕 고레스 제 삼년에 한 말씀(다바르= *dābār*)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갈라/*gālā<sup>h</sup>*), 그 말씀이 참되니, 곧 큰 전쟁(차바/*šābā<sup>ʿ</sup>*)에 관한 것이라. 그가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마르에/*mar<sup>ʿeh</sup>*)을 깨달으니라 (단 10:1)

다니엘이 말씀을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는 진술에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저자가 말씀과 환상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상을 말씀으로 보는 예언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자처럼 말씀을 받는다. 1절에서 나타났다고 번역한 갈라(*gālā<sup>h</sup>*) 동사는 예언자에게 말씀이 계시처럼 드러날 때 사용된다.

한 말씀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갈라/*gālā<sup>h</sup>*) (단 10:1)  
여호와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갈라/*gālā<sup>h</sup>*) 아니한 때라 (삼상 3:7)  
주 여호와께서...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갈라/*gālā<sup>h</sup>*) 아니하시고는 (암 3:7)

즉, 다니엘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받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니엘은 그 말씀이 참

36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는 환상의 해석 부분에 보좌환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단 7:9-14; 8:15-19), 10-12장에서는 보좌환상을 길게 서술하고 있다. 10-12장의 두 번째 요소인 보좌 환상이란 계시의 내용이 아니고, 계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 또는 천사의 현현(顯現, theophany)을 서술한다.

37 세 번째 요소인 환상의 해석은 바벨론 이후의 메데, 바사, 그리고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네 왕국의 역사적인 전개와 네 번째 왕국의 마지막 왕의 죽음을 통하여 종말이 실현될 것을 보여준다.

되고 큰 전쟁이라고 말한다. 즉, 말씀의 내용은 곧 “큰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차바(šābā?)라는 단어는 여러 번역본에서 전쟁(conflict)으로 번역하지만,<sup>38</sup>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차바라는 단어는 원래 군대의 징집 기간(민 1:3; 수 4:13; 대하 17:18)이나, 레위인이 회막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봉사의 기간을 뜻하거나(민 4:3, 23, 30, 35, 39, 39, 43), 율기에서 노동의 기간으로 이해되었다(율 7:1; 14:14). 나아가서 이사야 40장에서 차바라는 단어는 포로를 군대의 징집이나 레위인들의 봉사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마땅히 견뎌야 할 복역의 기간으로 사용되었다.<sup>39</sup> 그러므로 10장 1절에서 말씀으로 주어진 “큰 차바”를 단지 큰 전쟁으로만 번역한다면 7장과 8장에서 다니엘이 받은 계시와의 연속성이 문제가 있다.<sup>40</sup> 7장과 8장에서는 모두 종말이 올 때까지의 기간을 계시로 이해했기 때문에 차바도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차바는 종말까지 남아서 마땅히 견뎌야 할 포로의 기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큰’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한다면 ‘긴 포로의 기간’으로 번역할 수 있다. 물론 차바를 전쟁으로 번역한다면 이를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전제한 큰 전쟁, 즉 땅에서의 전쟁(11:5-45)과 하늘에서의 전쟁(10:13, 20, 12:1)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sup>41</sup> 즉, 10-12 장에서 주어진 환상인 “큰 차바”는 곧 종말이 오기까지의 큰 전쟁 또는 종말이 오기까지 남은 긴 포로의 기간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 10-12장에서는 예언자 전통을 따라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 말씀으로 보고, 다니엘을 말씀을 받는 예언자로 여긴다.

## 2)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말씀과 해석

학자들은 다니엘서 9장을 다니엘서의 최종 편집자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38 다음 네 번역본이 모두 ‘큰 전쟁’이라고 번역한다: NRSV, REB, NAB, New Jerusalem.

39 H. Ringgren, “שָׁבָא”,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XII (Grand Rapids: Williams B. Eerdmans, 2003), 213-214.

40 7장에서 환상의 내용은 종말까지 남은 때인 세 때 반(단 7:25)에 관한 것이며, 8장에서 환상의 내용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단 8:19)으로, 종말까지의 남은 기간(단 8:14)에 관한 것이다.

41 C. L. Seow, 위의 글 (2003), 154.

이는 9장에서 종말에 대한 환상의 마지막 단계 작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0장 1절에서 계시를 환상이라고 말하고, 다시 이 환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말했다. 말씀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그 말씀은 지금까지 주어진 적이 없는 새로운 계시였고, 이미 주어진 토라와 예언자의 말에서 온 것은 아니었다. 다니엘서 9장은 10-12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종말에 관한 계시를 주어진 말씀의 성취에서 찾는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종말이 이미 예언자들에 의하여 오래전에 주어진 말씀인 예레미야의 포로 70년이라는 말씀의 성취로 보는 것이다.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장르는 환상-보좌 환상-환상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9장은 말씀(1-2절)-다니엘의 기도(3-19절)-환상 해석(20-27절)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9장을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형식과 비교할 때, 환상의 해석만 동일하고 나머지는 다르다. 묵시문학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환상이라는 용어도 20-27절에서만 나타난다.<sup>42</sup>

9장은 다니엘서의 편집자의 신학을 통하여 전형적인 환상-보좌 환상-환상 해석의 장르를 변형하였다. 1-2절에서 환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다. 다니엘이 환상 대신 받은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포로 칠십 년”으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다(렘 25:11).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종말에 관한 계시가 예레미야가 이미 했던 말씀의 성취임을 보여주면서 종말에 관한 계시, 즉 깨달아야 할 환상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환상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가 전한 포로 70년에 관한 말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환상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보좌환상이 사라진 대신 회복의 기도로서 신명기 신학에 근거한 다니엘의 기도가 나타난다(3-19절).<sup>43</sup> 이어서 환상의 해석

42 다니엘은 환상 중에 가브리엘을 보았다(9:21). 환상을 해석하기 전에 “환상을 깨달으라”고 말한다(9:23). 그리고 환상은 곧 응하게 될 것으로 이해한다(9:24). 23절에는 “이 일(다바르=말씀)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라는 표현을 통하여 말씀의 해석이 곧 환상임을 가르친다.

43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신명기 신학을 따라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로 여겨야 한다. Norman W. Porteous, *Daniel.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5), 133. E. W. Heaton, *The Book of Daniel* (Torch Bible Commentary; London: SCM,

(20-27절)에서 천사가 나타난 칠십 년을 일곱 배가 늘어난 칠십 이레로 해석하고, 칠십 이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다. 9장은 환상을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예레미야의 칠십 년 예언으로 보고,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 종말이 나타난다고 이해했다. 주어진 말씀인 토라와 예언서 안에 종말에 관한 계시는 이미 주어졌다. 계시의 해석을 위하여 다니엘이 한 것은 회복을 간구하는 신명기 신학에 근거한 기도였다. 그리고 천사의 증보로 이루어진 환상에 대한 해석은 바로 칠십 이레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롭게 이해된 포로의 기간인 칠십 이레 중에서 반 이레가 남은 시점에서 핍박의 절정에서 있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sup>44</sup>

## 5. 결론

기원전 2세기에는 역사 이레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언제 종말이 오는지에 관한 계시가 필요하였다. 새로운 계시를 담을 수 있는 틀은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장르로서 환상-보좌 환상-환상 해석의 형식이었다. 다니엘서는 새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명령과 종말에 관한 계시가 주어지는 새 계시의 갈등 앞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1)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환상과 환상의 해석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는다. 2) 다니엘서 1-6장에서 토라에 충실한 인물임이 입증된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종말에 관한 새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3) 다니엘서 10-12장은 환상에 대한 해석은 네 왕국에 대한 것이지만, 환상을 '큰 차바'라는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

1956), 204. Harold Louis Ginsberg, *Studies in the Book of Daniel* (Texts and Studies of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4;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48), 33. W. S. Townner, "Retributional Theology in the Apocalyptic Setting", *USQR* 26 (1971): 203-14. B. W. Jones, "The Prayer in Daniel ix", *VT* 18 (1968): 492-93. Gerald H. Wilson, "The Prayer of Dan 9: Reflection on Jeremiah 29", *JSOT* 48 (1990): 91-99.

44 배정훈, 위의 글 (2003), 186-203.

다니엘을 말씀을 받는 예언자로 이해한다. 4) 다니엘서 9장은 환상을 말씀으로 대체하되 곧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포로 70년이며, 천사를 통하여 70년을 70 이레로 해석한다. 결국 다니엘서는 신명기의 신학에 기초하여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장르를 변형하여 종말에 관한 계시를 전하였다. 다니엘서의 형성이 후기 공동체를 위하여 제시하는 의미는 꿈과 환상(7장과 8장)을 통하여 새 계시를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계시를 말씀에 종속시킴으로 말씀 이외에 새 계시를 차단하는 결과를 얻었다.

## 6. 참고문헌

- 배정훈, “포로 칠십년의 비밀: 다니엘서 9장 연구”, 『신학과 문화』 13집 (2004): 84-114.
- 배정훈,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다니엘서 10-12장 연구”, 『신학과 문화』 14집 (2005): 43-78.
- 배정훈, “최종 본문으로 바라보는 다니엘서”, 『신학과 문화』 제 16 집 (2007): 241-266.
- 배정훈, 『다니엘서: 설교를 위한 다니엘서 연구』(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2007).
- 배정훈,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 에녹서와 다니엘서』(과주: 한국학술정보, 2008).
- 배정훈, 『다니엘』(서울: 장로교출판사, 2016).
- 콜린스, 존 J., 『묵시문학적 상상력: 유대 묵시문학 입문』(박요한 옮김),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6). 원제는 Collins, John J., *The Apocalyptic Imagination* (New York: Crossroad, 1984).
- Argall, Randal A., *1 Enoch and Sirach: A Comparative Literary and Conceptual Analysis of the Themes of Revelation, Creation and Judgment* (Atlanta: Scholars Press, 1995).

- Clines, David J. A., ed. “דָּנִיֵּאל”, in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III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Collins, John, J., *The Apocalyptic Vision of the Book of Daniel* (HSM 16;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7).
- Collins, John, J., *Daniel, With an Introduction to Apocalyptic Literature* (FOTL 20; Grand Rapids: Eerdmans, 1984).
- Collins, John, J., "Daniel, Book of", *Anchor Bible Dictionary* 2 (1992), 29-37.
- Collins, John, J.,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3).
- Crenshaw, J. L.,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rev. and enl. e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David, Pablo S.,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the Book of Daniel: A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 (Katholieke Universteit Leuven Dissertation, 1992).
- Ginsberg, Harold Louis, *Studies in the Book of Daniel* (Texts and Studies of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4;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48).
- Ginsberg, H. L.,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Daniel”, *VT* 4/3 (1954): 246-275
- Ginsberg, H. L., “In Re My Studies in Daniel”, *JBL* 68 (1949): 402-407.
- Goldingay, John E., *Daniel* (WBC 30; Dallas, Tex.: Word Books, 1986).
- Carey, Greg, "Vision",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5 (Nashville: Abingdon, 2009), 791.
- Hartman, L. & Di Lella, A. A., *The Book of Daniel* (AB 23; Garden City, N. Y.: Doubleday, 1978).
- Heaton, E. W., *The Book of Daniel* (Torch Bible Commentary; London: SCM, 1956).

- Hengel, Martin, *Judaism and Hellenism* (trans. John Bowden), (Minneapolis: Fortress, 1974).
- Naude, Jackie A., "דָּנִיֵּאל",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97), 56-61.
- Lacocque, Andre, *Daniel in His Time* (Columbia, S. 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3).
- Lacocque, Andre, *The Book of Daniel* (trans. D. Pellauer), (Atlanta: John Knox, 1979).
- Lucas, Earnest C., *Daniel* (Apollo Old Testament Commentary; Apollos: Leicester, England, 2002).
- Milik, J. T., *The Books of Enoch: Aramaic Fragments of Qumran Cave 4* (Oxford: Clarendon, 1976).
- Porteous, Norman W., *Daniel,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5).
- Redditt, Paul L., *Daniel*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9).
- Ringgren, H., "דָּנִיֵּאל",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XII (Grand Rapids: Williams B. Eerdmans, 2003), 211-215.
- Rowley, H. H., "The Bilingual Problem of Daniel", *ZAW* 50 (1932), 256-268.
- Rowley, H. H.,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Daniel: Some Comments on Professor Ginsberg's Article", *VT* 5/3 (1955), 272-276.
- Rowley, H. H., *The Relevance of Apocalyptic*, 3<sup>d</sup> ed.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3).
- Russell, D. S., *The Method and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4).
- Seow, C. L., *Daniel*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2003).

Slotki, Judah J., *Daniel-Ezra-Nehemiah* (Soncino Books of the Bible; London: The Socino Press, 1985).

## 검색어

다니엘서

꿈

환상

새 계시

목시문학

#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Daniel Viewed from the New Revelation Dispute

Chong-Hun Pae,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he new revelation dispute in the second century B. C.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Daniel, and to examine the understanding of the dream and the vision used as the instrument of revelation i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Daniel.

The Israelite community in the second century B. C. needed a new revelation about eschatology to protect its faith under the severe persecution of Antiochus IV. The contemporary apocalyptic form to contain the new revelation is vision - throne vision - vision interpretation. Under the struggle between the Deuteronomistic demand not to add or subtract to the contents of the Torah and the new revelation, the Book of Daniel was formulated in the following stages: (1) The new revelation is received through the instrument of dream and vision; (2) Daniel is qualified to receive the new revelation

www.kci.go.kr

through dreams and visions, since his faithfulness to the Torah is proved in Daniel 1-6; (3) Daniel 10-12 transformed visions into words according to the prophetic tradition; (4) furthermore, Daniel 9 subjected a vision about eschatology to Jeremiah's words, 70 exilic years. Now the 70 years were interpreted through an angel as 70 weeks.

In sum, the book of Daniel presented the revelation about eschatology based on the Deuteronomistic theology by transforming the apocalyptic genre. The meaning that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Daniel gives to later communities, is not only receiving the new revelation through dreams and visions, but also blocking new revelations by subjugating them to the Word. On the one hand, the demand not to add or subtract new revelations formulated the identity of Judaism. On the other hand, the book of Daniel made possible the emergence of the Christianity by showing the possibility of a new revelation through dreams and visions.

## Keywords

the book of Daniel

dream

vision

the new revelation

apocalyptic literature

- 투고일: 2019년 7월 15일
- 심사일: 2019년 7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8월 4일

[www.kci.go.kr](http://www.kci.go.kr)